

더위야 물러가라! 마린보이들 나가신다

폭 폭 썬은 여름일수록 더욱 땀을 내는 이열치열 전락으로 더위를 이기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시원한 물속에서 더위를 한번에 몰아내는 방법도 있다. 그런 점에서 토털 온라인 티켓팅 서비스업체 '티켓링크'의 스킨스쿠버 동호회 '호흡곤란'은 한여름을 이기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동호회다.

35℃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를 이기기 위해 동호회 회원들이 집합한 곳은 잠실종합운동장 내 스킨스쿠버장. 무더위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시원한 기운이 이들을 감싼다. 장비를 메고 잠수에 돌입하자, 차가운 물도 미지근하게 만들 만큼 후끈한 열정이 뿜어져 나온다.

동호회가 처음 결성된 것은 2004년 겨울의 일이다. 스킨스쿠버 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던 윤철민 주임이 주축이 돼 모이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그가 회장을 맡았다.

"처음에는 2~3명 정도 스킨스쿠버 강습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아 체험 위주로 시작했어요. 그러던 것이 차차 입소문이 나서 지금은 10명에 달하는 회원들을 보유한 동호회로 당당히 자리 잡았죠."

알음알음 스킨스쿠버의 매력에 빠져든 사람들은 화요일과 목요일, 업무가 끝나는 6시부터 9시까지 정기모임을 갖는다. 여름 더위가 한창인 이번 달에는 수영장이 아닌 바다로 진출할 예정이라고. 사방이 탁 트인 바다에서의 정기투어를 앞두고 기대에 찬 회원들의 표정은 마냥 즐겁기만 하다.

그런데 이들에게도 험난한 시절이 있었으니, 동호회 초기에 벌어졌던 아찔한 사건은 지금도 이들의 기억에 선명하다. 혹시나 다른 동료들이 스킨스쿠버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조바심 때문에 비밀리에 모임을 가졌던 것. 그러던 중에 동호회 모임을 알리는 공지메일을 회사 전체 메일로 발송해 버린 치명적 실수 때문에 '호흡곤란'의 존재가 모든 사원들에게 노출되고 말았다.

"그 일로 약간 문제가 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스킨스쿠버에 대한 저희의 애정이 알려지면서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낳았어요. 전화위복이 된 거죠. 이제 얼마 있으면 회사에서 정식 지원금도 나온답니다.(웃음)"

지금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되었지만 그 사건은 동호회 탄생 이래 가장 큰 위기이기도 했다. 그런 과정을 거쳐 동호회를 지켜낸 만큼 이들은 결속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었다.

스킨스쿠버는 일대일 강습이 필수이며,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실력 향상 여부가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에 성취감이 큰 스포츠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장비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다는 윤주임의 귀뜸이 이어진다. 현재 모든 장비는 렌탈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어느 동호회이건 최소한의 장비가 필요한 것처럼 스킨스쿠버도 최소한의 렌탈료와 열정만 있으면 도전이 가능하다고 한다.

열심히 노력해서 회원 전원이 스킨스쿠버 라이선스를 따는 것이 목표라는 '호흡곤란' 회원들은 해외 정기투어도 해보고 싶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뜨거운 여름 날씨보다 더 뜨거운 이들의 열정 덕분에 더위도 한결음에 물러갈 것만 같다.

▼ 여름은 우리에게서 더욱 즐거운 계절, 티켓링크 스킨스쿠버 동호회 '호흡곤란'

